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s of Self-esteem with Self-resilience on Adolescents Anger

이은철*, 남선우**
한국교육개발원*, 경희대학교**

Eun-Chul Lee(godlec@hanmail.net)*, Sun-Woo Nam(calvin21@empal.com)**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고 분노에 대한 지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41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분노 수준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과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부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분노억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이 부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분노 조절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정적 영향을 주었다. 넷째, 분노 수준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분노 | 청소년의 분노 | 청소년의 분노수준 | 자아존중감 | 자아탄력성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nteraction effects of self-esteem with self-resilience on adolescents' anger and to suggest for teaching method. For research, Anger, self-esteem, self-resilience was measured to total of 419 adolesc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Firstly, anger were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emotion regulation, diversity of Interests and interest, self-esteem in schools. Secondly, anger-in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the self-esteem in schools, self-esteem in social, emotion regulation. Thirdly, anger-control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emotion regulation, self-esteem in family. Fourthly, interaction effects of the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was statistically confirmed on anger. Fifthly, interaction effects of the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was statistically confirmed on anger-control.

■ keyword : | Anger | Adolescents' Anger | Adolescents' Anger Level | Self-esteem | Self-resilience |

I. 서론

청소년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다음 시대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의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다음 시대의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치는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히 학교폭력의 신고건수는 2009년 2,017건, 2010년 3,237건, 2011년 4,269건으로 증가하였다[8]. 이와 같은 폭력 문제 외에도 2013년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족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청소년들이 4.5%가 되며, 나홀로 있기를 선호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며, 진학과 성적의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39.2%나 있다[18].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제안되었다[21]. 청소년 문제는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 또는 미디어 등에 의한 학습 등이 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 우울감, 낮은 수준의 사회성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5][9][22][23].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로 구체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26]. 이와 함께 공격성은 분노로 인해 폭력으로 촉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분노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매우 격렬한 정서적 움직임으로 그 대상에 대해 신체 및 심리적 상해를 입히려는 행동이다. 이와 같은 분노의 표출은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진다[20].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다시 말하면 청소년의 여러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지만 문제 행동을 촉발하는 과정은 분노에 대한 조절 및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분노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표출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여러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요인이 청소년의 분노 조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1][19][24][26][27][29]. 청소년의 분노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된다.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시기에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분노가 쉽게 나타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평가 또는 인식이 제공되면 심리적인 상처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주변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이 제공되더라도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인 인식이 있기에 쉽게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기에 분노가 쉽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24]. 이와 함께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균형을 회복하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심리적 불균형에 대한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잠재적인 분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를 유지하게 된다. 이후에 분노를 촉발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을 경우 잠재되어 있던 분노까지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이처럼 청소년의 분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청소년의 폭력과 분노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 이와 관련되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의 문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탐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 수준, 분노 억제, 분노 조절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탐색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분노를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분노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노애락(喜怒哀樂)의 한

유형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분노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상처를 받았을 때나 좌절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다발이라고 할 수 있다[7]. 분노는 대상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 사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분노는 심리에 상처를 입히는 언어적 공격과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적 공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분노는 격렬한 감정의 움직임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고, 심리 및 신체에 상처를 입히고자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4].

이와 같은 분노는 심리적 미숙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에 특별히 청소년들은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인들은 분노의 순간에 여러 가지 관계 및 상황들을 고려하여 분노를 조절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의 분노는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의 분노는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의 분노는 구체적인 대상에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별히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27][30]. 이에 청소년의 분노는 대부분 언어적 공격과 행동적 공격이 동시에 나타나며 매우 파괴적인 것이 특징이다. 결국 청소년의 분노는 학교 폭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분노를 지도하기 위해서 분노의 하위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분노와 관련된 하위요인은 먼저 분노 수준이다. 분노 수준은 청소년의 잠재적 분노의 정도를 의미한다. 잠재적 분노는 청소년들이 해소하지 못한 분노의 정도를 의미하며, 잠재적 분노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분노가 표출 될 때 한꺼번에 나타나기에 분노의 수준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들끓는 분노 억제이다. 분노 억제는 청소년이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억압 시켜 놓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은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지만 분노 억제가 반복되면 분노 수준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노 조절이다. 분노 조절은 청소년이 자신의 분노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분노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분노 수준을 낮게 조절할 수 있기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분노 수준을 줄이고 분노 억제보다는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청소년의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자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와 외부에서 오는 평가들을 종합하여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내린 정도이기 때문이다[6]. 다시 말하면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외부의 판단과 자신의 신념체계, 그리고 평가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 정도라고 할 수 있다[11]. 이와 함께 자아존중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자신의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매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13].

이에 청소년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분노 충동 조절이 미숙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4].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에 부족한 것과 단점이 나타나면 수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심리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건강을 확인하는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함께 청소년의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아탄력성(self-resilience)이다. 본 연구는 자아탄력성을 심리적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아탄력성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때 안정을 찾고자 노력하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12]. 다시 말하면 자아탄력성은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아탄력성의 특징은 먼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둘째는 성격을 안정적으로 하며, 셋째는 자신감을 주고, 넷째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 [3].

청소년의 분노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해서 잠재적 분노로 이어지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함으로 분노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신의 심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노 충동이 나타나지 않고,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나타났을 때 안정 상태로 빠르게 회복됨으로 잠재적 불안으로 인한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적은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노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분노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지금까지 청소년의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특성이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각각 다른 심리적 요소이지만 미치는 영향이 유사할 때 상호작용이 나타나서 영향력이 배가 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에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각각의 영향을 탐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분노에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이후에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분노를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14세에서 19세 청소년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응답하여 수집된 419명으로서 평균 연령은 15.8세이다. 성별과 연령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연령 분포

비고		나이						전체
		14	15	16	17	18	19	
성별	남자	8	17	24	81	62	13	205
	여자	20	16	24	62	86	6	214
전체		28	33	48	143	148	19	419

2. 연구 도구

2.1 분노수준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분노 수준 척도는 전경구[15]의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노 수준, 분노 억제, 분노 조절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분노를 수준과 억제 경향, 조절 역량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분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반하기에 선정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도구의 신뢰도는 [표 2]과 같다.

표 2. 분노 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	
분노 수준	8	.89	.81
분노 억제	8	.73	
분노 조절	8	.81	

2.2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귀연과 최보가[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하위 요인이 생활 배경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기에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어떠한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이며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3.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	.79
총체적 자아존중감	6	.82	
사회적 자아존중감	9	.85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9	.77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8	.85	

1.3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를 위해 정은옥[17]의 청소년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긍정적 미래 지향성, 감정 조절,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자아탄력성 척도 가운데 분노와 관련성이 높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도구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아탄력성 척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a	.74
긍정적 미래 지향성	5	.78	
감정 조절	6	.71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5	.75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분노 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단계적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분노 수준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고,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표 5. 하위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하위요인		사례	평균	표준편차
분노	수준	441	2.90	0.61
	억제	437	2.84	0.58
	조절	447	3.17	0.59
자아존중감	총체적	445	3.37	0.58
	사회적	446	3.37	0.60
	가정에서의	443	3.39	0.68
	학교에서의	438	3.14	0.49
자아탄력성	긍정적 미래 지향성	447	3.68	0.83
	감정 조절	449	3.17	0.53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448	3.62	0.76

표 6. 주요 요인 상관관계 분석표

항목	1	2	3	4	5	6	7	8	9	
분노	수준 (1)	1								
	억제 (2)	.540***	1							
	조절 (3)	-.007	.240***	1						
자아존중감	총체적 (4)	-.046	-.089	.401***	1					
	사회적 (5)	.010	-.116	.335***	.738***	1				
	가정 (6)	-.084	-.031	.374***	.636***	.702***	1			
	학교 (7)	.168**	.222**	.037	.244**	.317**	.290**	1		
자아탄력성	미래지향 (8)	-.024	-.085	.330***	.668***	.599***	.546***	.231**	1	
	감정 (9)	-.345***	-.194**	.466***	.490***	.375**	.343**	.038	.475***	1
	흥미 (10)	.007	-.070	.353***	.628***	.588***	.485***	.271**	.830***	.474***

2.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검증 결과

1.1 분노 수준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검증 결과

청소년의 분노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가지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의 분노 수준에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 요인의 설명력이 11.5%로 가장 많은 높은 설명력을 가지며, 다음으로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요인의 설명력이 3.6%로 부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이 1.5%의 부적으로 나타났다.

표 7. 분노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B	SE B	β	t	ΔR^2	R ²
절편	3.439	.230		14.944***		.162
감정 조절(탄)	-.492	.057	-.429	-8.698***	.116	
흥미 다양성(탄)	-.140	.041	.175	-3.429**	.036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자)	-.162	.057	.128	-2.836*	.015	

*** p<.001, ** p<.01, * p<.05

1.2 분노 억제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검증 결과

청소년의 분노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가지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분노 억제에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요인의 설명력이 부적으로 4.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 요인의 설명력이 3.9%로 부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이 1.6%의 부적으로 나타났다.

표 8. 분노 억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B	SE B	β	t	ΔR^2	R ²
절편	2.822	.228		12.385***		.101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자)	-.312	.056	.263	-5.552***	.046	
감정 조절(탄)	-.158	.052	-.147	-3.024**	.039	
사회적 자아존중감(자)	-.136	.049	-.143	-2.791*	.016	

*** p<.001, ** p<.01, * p<.05

1.3 분노 조절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검증 결과

청소년의 분노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가지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의 분노 억제에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 요인의 설명력이 21.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 요인의 설명력이 5.2%로 나타났다.

표 9. 분노 조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예측변인	B	SE B	β	t	ΔR^2	R ²
절편	1.130	.163		6.947***		.262
감정 조절(탄)	.419	.048	.379	8.807***	.213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자)	.211	.037	.243	5.646***	.052	

*** p<.001, ** p<.01, * p<.05

3.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3.1 분노 수준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청소년의 분노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요인인 A×B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1은 설명력이 2.4%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066, 자아탄력성은 -.049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요인인 A×B를 포함한 모형2는 설명력이 2.2%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057로 감소하였고, 자아탄력성은 -.172로 증가하였다. 상호작용의 요인은 -.011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표 10. 분노 수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예측변인	모형1			모형2		
	B	SE B	t	B	SE B	t
절편	2.928	.214	13.653***	1.550	.478	3.245***
자아존중감(A)	-.066	.020	-3.269***	-.057	.043	-1.324*
자아탄력성(B)	-.049	.020	-2.419**	-.172	.043	-3.994***
A×B				-.011	.003	-3.223**
	$\Delta R^2 = .024$			$\Delta R^2 = .022$		
	$R^2 = .046$					

*** p<.001, ** p<.01, * p<.05

3.2 분노 억제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청소년의 분노억제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형1에 대한 검증은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모형2는 유의확률 .05수준 이상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분노 조절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청소년의 분노수준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요인인 A×B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1은 설명력이 19.3%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112, 자아탄력성은 .040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요인인 A×B를 포함한 모형2는 설명력이 1.9%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은 .221로 증가하였고, 자아탄력성은 .149로 증가하였다. 상호작용의 요인은 .003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표 11. 분노 조절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예측변인	모형1			모형2		
	B	SE B	t	B	SE B	t
절편	1.468	.188	7.815***	.240	.418	2.573***
자아존중감(A)	.112	.018	6.375**	.221	.037	5.895***
자아탄력성(B)	.040	.018	2.240*	.149	.038	3.960***
A×B				.010	.003	3.280**
	$\Delta R^2 = .193$			$\Delta R^2 = .019$		
	$R^2 = .212$					

*** p<.001, ** p<.01, * p<.05

V.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1.1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 검증에 대한 해석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검증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분노수준은 청소년의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노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노수준에 대해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조절이 가장 많은 부적 영향이 있고, 다음으로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이 영향이 높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자아존중

감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혜순과 옥지원[13]의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특별히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충동성이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 영역에 흥미를 가지고 도전하며 즐길 줄 아는 청소년이 분노 수준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분노 수준이 낮아지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분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분노억제는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무조건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노억제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감정조절요인이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청소년들도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도 분노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무조건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분노조절은 발생된 분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해소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분노조절에 대해서는 자아탄력성의 감정조절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청소년이 분노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에게 존중받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검증 결과에 대한 해석

청소년의 분노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분노 수준에 대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1보다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2에서 자아탄력성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과 함께 자아존중감이 고려될 때 자아탄력성의 영향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분노수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 자아탄력성과 함께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분노조절에 대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1보다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형2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모두 영향이 높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분노조절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각각 조치하는 것보다 함께 조치할 때 상호작용의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탐색하고, 상호작용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후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지도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분노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자아탄력성의 감정 조절 요인은 청소년의 분노 수준, 억제, 조절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점은 청소년들이 자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입시와 성적의 압력 속에서 살아가며 공부를 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교사와 부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요인만 처치하기 보다는 두 요인 모두를 함께 처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지도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하나의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함께 고려할 때 상호작용 효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이후로 지도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분노와 공격성에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분노 또는 공격성,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초점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의 함의점은 앞서 밝혔듯이 교육 또는 처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 의의가 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기에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표집 단위를 확대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계적 검증을 통해 증명하였지만 실험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는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을 조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된 것이다. 이후에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증적 연구와 함께 해석의 틀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 주관적 행복감과 자살충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36-247, 2013.
- [2] 김영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470-481, 2016.
- [3] 김효은,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 역기능적 태도,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4] 류혜옥, “청소년의 분노대처 방식과 패스트푸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 pp.61-78, 2003.
- [5] 박효정, 정미경, 박중효,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6] 변보기, 강석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3호, pp.269-291, 2002.
- [7] 송혜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분노조절,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8] 오성주, “청소년 왕따와 폭력 그리고 자살문제 - 이미지 착오와 편견극복을 위한 교육적 대안-,” 기독교교육논총, 제34권, pp.259-283, 2013.
- [9] 오종은, 이재연, “일반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불안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5호, pp.163-178, 2014.
- [10] 이미리,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2호, pp.127-143, 2009.
- [11] 이은철,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640-649, 2015.
- [12] 이창욱, 김난예, “부모 양육태도와 하나님 이미지가 후기 아동기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제34권, pp.93-120, 2013.
- [13] 이해순, 옥지원,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438-446, 2012.
- [14] 임미옥, 송민경, 김청송, “청소년 특질에 기반한 분노, 사회적지지,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7권, 제2호, pp.501-523.
- [15] 전경구,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연구(2),” 재할심리연구, 제3권, pp.53-69, 1996.
- [16] 전귀연, 최보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제3호, pp.157-173, 1993.
- [17] 정은옥, 심리적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8] 조은하,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대한 창조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제34권, pp.147-168, 2013.
- [19]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양육 태도가 그들의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161-181, 2000.
- [20] J. A. Apsche, C. K. Bass, J. L. Jennings, C. L. Murphy, L. A. Hunter, and M. A. Siv, “Empirical comparison of three treatments for adolescent males with physical and sexual aggression: mode deactivation therapy,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social skills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Consultation And Therapy, Vol.2, No.1, pp.140-148, 2005.
- [21] B. B. Asgeirsdottir, G. H. Gudjonsson, J. F. Sigurdsson, and I. D. Sigfusdottir, “Protective processes for depressed mood and anger among sexually abused adolescents: The importance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9, No.5, pp.402-407, 2010.
- [22] V. D. Barrio, A. Aluja, and C. Spielberger, “Anger assessment with the STAXI-CA: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new instrume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7, No.2, pp.227-244, 2004.

[23] L. A. Curry and L. M. Youngblade, “Negative affect, risk perception, and adolescent risk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7, No.5, pp.468-485, 2006.

[24] E. Franck and R. De Raedt, “Self-esteem reconsidered: Unstable self-esteem outperforms level of self-esteem as vulnerability marker for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45, No7, pp.1531-1541, 2007.

[25] R. B. Jarros, G. A. Salum, C. T. B. D. Silva, R. Toazza, M. D. A. Costa, J. F. D. Salles, and G. G. Manfro,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ce are associated with impaired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to negative val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46, No.2, pp.147-151, 2012.

[26] M. A. Kerr and B. H. Schneider, “Anger ex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Review Artic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8, No.4, pp.559-577, 2008.

[27] Y. J. Park, H. Ryu, K. S. Han, J. H. Kwon, H. K. Kim, H. C. Kang, and H. Shin, “Anger,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Korean Adolesc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24, No.3, pp.168-177, 2010.

[28] M. J. Pearce, T. D. Little, and J. E. Perez, “Religiousn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32, No.2, pp.267-276, 2003.

[29] G. S. Wilson, M. E. Pritchard, and B. Revallee, “Individual differences in adolescent health symptoms: the effects of gender and coping,” *Journal of Adolescence*, Vol.28, No.3, pp.369-379, 2005.

[30] D. Zimprich and A. Mascherek, “Anger expression in Swiss adolescents: Establishing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in the AX scales,” *Journal of Adolescence*, Vol.35, No.4, pp.1013-1022, 2012.

저 자 소 개

이 은 철(Eun-Chul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교육학
과(교육석사)
- 2012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학
과(교육박사)
- 2013년 10월 ~ 현재 : 한국교육
개발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 이러닝, 이러닝교수 설계, 온라인 협력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

남 선 우(Sun-Woo Nam)

정회원



- 2008년 2월 : 경희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 경희대학교 교육학
과(교육학 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경희대학
교 강사

<관심분야> : 스마트러닝, 교수 체제 설계